

1000년대를 1999년도로 마감하고 대량의 2000년대 새 천년을 맞는다. 막연하기는 하지만 새로운 희망과 기대가 누구의 가슴에서든 끓어 오른다. 돌아보는 세월 속에는 기쁨 보다 고통스러움이 많았지만 새 천년에는 무언가 크다면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2000년 1월 1일을 맞으면서,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보존 존속시켜야 할 것은 훌륭한 전통으로 가꾸어가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할 시점이다.

人性的 재정립

2000년대는 산업사회의 한계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해야 한다. 새 시대는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이 주류를 이룰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간생활에 편의와 경제적厚生을 주었지만 치른 代價도 적지 않았다.

자연이 파괴되면서 삶의 터전 자체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고, 물질적 풍요 속에서 인간성의 훼손은 위험수위를 넘었다. 범죄가 창궐하고 人倫이 물질 속에 매몰되었다.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떠나지 않았던 지난 세월이었다.

이러한 반성은 西歐 지식인들 사이에서 비롯되

었고, 그들은 동양의 지혜 속에서 그 해답을 찾고 있다. 불교의 자연사상, 유교의 인본사상, 인디언의 초월적 死生觀, 흑인의 낙천주의 등등이 마침내 「인류구원의 해답」이 되고 있는 것이다.

2000년대는 그동안 천대받고 소외되었던 有色人種의 삶의 방식과 철학이 백인의 과학기술을 압도하면서, 비장애 선 人類를 푸른 초원으로 인도하는 시대가 될 것임을 많은 학자들이 예언하

고 있다.

雄飛하는 경북

그동안 면밀히 설계되었던 웅비경북의 계획이 2000년대에는 실전적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다. 유교문화권, 불교문화권, 가야문화권으로 나눈 경북 문화개발계획이 새 시대에는 가시적 모습을 보일 것이고, 이 문화관광산업은 세계적 주목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영국여왕도 불교 유교문화에 각별한 관심을 보

신년사설

였지만, 가장 한국적인 문화가 가장 큰 관심을 이끌어낸다는 것을 증명한 일이고, 경북의 문화개발사업은 이러한 시대적 추세에 잘 부응하고 있

는 것이다.

고유문화 개발사업은 친환경적 사업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머리와 가슴의 산업」이라는 점에서 세계가 공히 관심을 기울이는 사업이다. 그 문화전통 속에서 우리는 무한한 문화상품 개발의 아이디어를 얻는다. 그것은 바로 「가장 우리것 다워서 가장 세계적인」 새시대의 상품이다.

영원의 불

「호랑이꼬리」끝에서 새천년 한민족 해맞이축

제를 국가적 행사로 거행하게 된 것은 실로 경북의 자랑이라 할 만하다. 전국 5군데서 해맞이 행사를 베풀지만 호미곶의 행사가 그 중 대표적 행사임은 틀림없다.

반산반도의 「1999년 마지막 일몰의 빛」과 호미곶의 「2000년 첫 일출의 빛」과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날씨변경선의 「지구 첫 빛」등 3개의 빛을 모아 하나의 빛으로 융합하고 이를

란히 밝히는 새 시대가 되기를 기원한다.

새천년의 소망

2000년대에는 인간이 인간다운 本性을 회복하게 되기를 소망한다. 사람마다 사랑의 마음이 충만해서 소외되고 천대받는 사람이 없어지기를 소망한다.

새 시대에는 분단의 현실이 소멸되기를 소망한다. 동포애와 신뢰로 반갑게 두 손을 맞잡게 되기를 소망한다.

새 시대에는 경북도민들의 마음이 한결 따뜻해지기를 기원한다. 남을 해쳐 이익을 얻으려는 마음도 버리고, 능력에 넘치는 성취를 탐하는 욕심도 버리고, 지도자가 지도자다운 품성을 갖추려 노력하는 우리사회가 되기를 기원한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통탄과 눈물이 없는 인간사회를 이루어가는 새천년이 되기를 기원한다.

우리 신경북일보는 새 시대를 맞아 각오를 더 단호히 다진다. 명실상부한 경북의 대변자가 되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정론자가 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우리 모두의 소망과 기대를 이루어감에 있어 신경북일보는 좌우나 단단한 하나의 정글다리가 될 것을 독자 여러분들 앞에 약속드린다.

희망찬 2000年代의 雄飛

신경북만평

김영석

99년 외환지표 일제히 개선

외환보유고 98년말보다 52% 증가한 740억 달러

작년말 외환보유고는 98년말보다 52.6% 증가한 740억5천만달러로 집계됐다.

또 외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의 미국재무부채권(TB) 기준 가산금리도 5년만기와 10년만기가 올해말에 각각 1.10%, 1.57%로 작년말보다 2.30%, 2.18%포인트 낮아지는 등 외환지표들이 일제히 개선됐다.

구랍 3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와함께 원달러 환율은 작년말 달러당 1천204원에서 올해말 1천138

원으로 5.8%, 연평균으로는 달러당 1천398원에서 1천189원으로 22.7% 각각 절상됐다.

올해 환율 최저치는 지난 8일의 1천126원, 최고치는 지난 3월5일의 1천242원이었고 올해 하루평균 외환시장 거래량은 23억5천만달러로 작년의 11억달러와 비교할때 2.1배로 늘었다.

이와함께 올해 외국인 주식채권투자 순유입액은 53억7천만달러로 작년의 47억8천만달러보다 12.3% 증가했다. (연합)

우병윤 경북도 산림과장 녹조근정훈장



산림정책 우수공무원으로 31일 녹조근정훈장을 받은 우병윤경북도 산림과장(42).

치산녹화

10개년계획을

조기에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지속적인 산림자원조성과 표고재배 시설현대화, 송이환경개선사업 등 산지소득사업 등을 적극 전개한 공로로 녹조근정훈장을 수상한 우과장은 올해 경북도를 산림정책 전국 최우수 기관단체로 이끌었다.

또 날로 증가하는 자연유형림 확충 경북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는 등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아 수상하

게된 우과장은 특히 송이환경 개선 사업을 적극 전개한 공로도 인정됐다. [한국선기자]

경북도 등 종무식

경북도를 비롯 경북도교육청, 경북지방경찰청 등 도내 주요기관들은 31일 낮12시 일제히 99년도 종무식을 거행하고 지난 한해를 정리했다.

이근 경북지사는 송년사를 통해 「도정 및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준 도민과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많은 바 소임을 다해 준 공직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격려했다.

[이승환기자]

각계인사 경진년 신년사

박준규 국회의장



단순히 새 해가 아니라 새 세기 새 천년의 아침이 열렸다. 우리의 지난 100년은 분열과 대립,

과거 아픔 교훈삼아 새로운 각오 다져야

알려와 정체의 한스러운 세기였다. 모든 국민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겨우 행복의 언덕을 찾아가 싶더니 IMF 위기라는 긴 암흑의 터널에서 고통을 겪기도 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두 다스린 한 번 곰곰히 생각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하겠다.

새해에는 총선거가 있다. 새 세기를 여는 총선거인 만큼 국민의 주권행사에 한층더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다. 그 어떤 무책임한 선동이나 달콤한 교연영색, 또는 허망한 공약이나 물질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선거권 행사를 통해 새 시대에 걸맞은 정치자를 가꿔 나가야 하겠다.

우리가 그 속에서 주체적으로 개방과 개혁의 정신을 견지하고 사랑과 화합, 그리고 관용의 민주정치를 발전시켜 나가면 새 시대는 의롭고 선한 상생의 세계가 될 것이다.

최종영 대법원장



천애하는 7천만 내의 동포 여러분! 인류 역사의 새 지평을 열게 될 2000년의 새

가정마다 기쁨 가득 뜻이루는 한해 되길

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사법부를 대표하여 국민 여러분께 새해인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고, 뜻하시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국가적으로도 지난 수년간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명실상부한 세계의 중심국가로 웅비하는 새 천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조국이 걸어온 지난 100년은 고난과 역경, 피와 땀으로 점철된 격동의 세월이었습니다.

이제 새 천년을 시작하는 전환점에 서서 저는 지난 역사의 격랑속에서 끊임없는 시련과 도전에 극복하고 오늘의 번영을 이룩한 우리 민족의 굳은 의지와 헌신적인 노력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김용준 헌법재판소장



2000년의 새 아침을 맞이하여 국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기쁨과 보람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어떤 시련 닦쳐와도 새로운 도약 기회로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헌법재판소 가족들과 더불어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대망의 21세기, 새로운 천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천년의 세월이 가고 오는 역사의 커다란 전환점에 서고 보니 새삼 역사의 무게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다가 오는 21세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의 변화가 그 이전 수천년 동안의 변화를 능가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급격한 변화는 우리에게 가치체계의 혼란을 가져올 것이며, 우리는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어떠한 시련이 닥치더라도 도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는 결의를 다져 나가야 하겠습니다.

경북일보

부회장 黃仁翼 발행·편집·인쇄인 李揆三 편집국장 金植運

1990년 5월 7일 창간 1992년 12월 21일 등록번호 가-130호 <일간지>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2동 618-3(우편번호 791-052)

독자투고 080-777-1122 편집국팩스(0562)289-2288 야간당직(0562)289-2219

사 회 부 (0562)289-2244 편집부 (0562)289-2269 서울지사 (02)514-6761
사회2부 (0562)289-2266 문화부 (0562)289-2264 대구본부 (053)741-0336
경치부 (0562)289-2247 체육부 (0562)289-2248 경주본부 (056)771-9393
경제부 (0562)289-2257 사진부 (0562)289-2271 구미본부 (0546)458-6633

광고안내(0562)289-2222 광고팩스(0562)289-2229 배달사고(0562)289-2233

구독료 월정 6,000원 1부 3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 구독신청 및 배달안내 | | | |
|-------------|--------------|-------------|-------------|
| ■ 동부권 | 동해 286-3366 | ■ 중부권 | 경산 815-2102 |
| 포항 277-4181 | 구룡포 276-6831 | 경주 771-9393 | 영주 859-2825 |
| 대구 284-0817 | 대보 284-8615 | 경주 771-8828 | 영주 634-1851 |
| 남부 284-9219 | 청하 248-9024 | 안강 762-8822 | 청송 872-6728 |
| 북부 247-9229 | 신광 243-7727 | 강동 762-6469 | 하양 851-2450 |
| 서부 247-7026 | 속천 243-4267 | 외동 773-1717 | 진보 874-3633 |
| 중앙 286-1275 | 영덕 733-8979 | 연남 744-0181 | 봉화 673-4556 |
| 경남 272-7322 | 강구 733-3337 | 양남 744-0181 | 상주 536-0478 |
| 효자 275-6076 | 울진 791-2285 | 북구 746-6804 | 김천 433-1744 |
| 오산 291-9169 | 울릉 783-1317 | 고령 955-3457 | 영성 558-1540 |
| 함해 262-5003 | 평해 787-5286 | 성주 933-2112 | 문경 973-9999 |
| 출판 261-1810 | 후포 788-2716 | 영천 334-3430 | 군위 382-0558 |
| | | | 의성 833-1204 |
| | | | 영양 683-2367 |
| | | | 예천 655-2233 |

머리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과 이 즐거움을 나누겠습니다.

미키(MIKI)아반(AVANT)헤어
http://www.MIKIAVANT.co.kr

포/향/최/초/모/발/클/리/닉

전화 주시면 미키의 카다락을 보내드립니다.

- 가라미 속의 피부까지 자연스럽게!
- 이마선은 어색하지 않고 완벽하게!
- 헤어스타일을 마음대로 자유롭게(3STEP 공법)
- 화학모가 아닌 자연모를 사용합니다.
- 타사제품도 부착 및 관리해 드립니다.

新 H.Q공법? (NEW HAIR QUICK)
탈모현상을 최상급의 머리로 시술하는 미키의 새로운 공법으로 기존의 클리핑식이나 샴푸가 불리한 접촉방식의 단점을 100%로 보완한 혁신적인 방법입니다.

(0562) 283-0111

전국 직영점 서울 광화문, 강북, 제주, 강릉, 순천, 광주, 울산, 마산, 진주, 부산, 대구

일본 지사 후쿠오카, 기타큐슈, 구마모토, 쿠루메, 오이타, 도큐야마

강사 모집

21C를 함께 할 참신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 모집분야 | 인원 | 자 격 |
|-------|-----|--|
| 영어 강사 | ○○명 | · 정규대학 졸업자로서 영어에 능통한 자 · 영어권 유학 경험자 또는 학원강사 · 유경험자 우대 · 전공 무관 |
| 일어 강사 | ○○명 | · 정규대학 졸업자로서 일어에 능통한 자 · 유학 경험자 또는 학원강사 유경험자 우대 · 전공 무관 |

· 전형방법: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
· 제출서류: 자필이력서, 주민등록등본 1통,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사진 3×4cm 2매
· 제출기간 및 접수처
- 제출기한: 2000년 1월 5일까지
- 우편접수: 남구 대도동 94-6번지
- 제출방법: 직접접수에 한함

글로벌외국어학원
080-777-6969 / 275-6969

가자주류 포항점

도외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가자주류 포항점은 경북 최대할인매장으로 민속주, 포냐, 위스키, 브랜드, 리큐리를 등 다품종으로 구성맛이 선물셋트를 구비 하였습니다.

최고의 품질을 제공하는 가자주류
최고로 싼 가격의 가자주류
최고의 종류를 확보한 가자주류

가자주류 포항점(오광장)
전화.277-0510~1, 무료전화.080-6000-200

주소: 죽도초등학교 ● 국민은행 시내 →
시외터미널 ● 구민예식장
가자주류 할인점

가자주류 포항점

도외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가자주류 포항점은 경북 최대할인매장으로 민속주, 포냐, 위스키, 브랜드, 리큐리를 등 다품종으로 구성맛이 선물셋트를 구비 하였습니다.

최고의 품질을 제공하는 가자주류
최고로 싼 가격의 가자주류
최고의 종류를 확보한 가자주류

가자주류 포항점(오광장)
전화.277-0510~1, 무료전화.080-6000-200

주소: 죽도초등학교 ● 국민은행 시내 →
시외터미널 ● 구민예식장
가자주류 할인점